



2022
—
제1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재단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KOREAN PUBLISHING FOUNDATION

01

재단 소개



재단 소개



출판진흥사업



재단 연혁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발전과 출판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1969년 7월 7일 (사)한국출판금고로 출범하여 2002년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2년 현재까지 53년간 지속 사업 중인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 ① 출판자금융자 사업(출판사 대상)
- ②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직원 대상)
- ③ 단기출판자금융자(어음할인) 사업
- ④ 출판유통현대화용자 사업
- ⑤ 올해의 청소년교양도서 선정·보급사업
- ⑥ 한국출판평론·학술상 공모 지원사업
- ⑦ 출판포럼 개최 지원사업
- ⑧ 국제도서전 개최 지원사업
- ⑨ 한국출판편집자상 사업

- 1969. 07. 07. 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창립(초대 민유동 이사장 취임)
- 1972. 09. 중앙도서전시관 운영(1988년 12월까지 운영)
- 1974. 04. 출판자금융자 사업 개시
- 1985. 12. 24.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설립(초대 정진숙 이사장 취임)
- 2002. 11. 28. 재단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21. 03. 제6대 김종수 이사장 취임

02

인사말



책 출판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과정이 편집이라는 점은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종 시상이나 칭찬, 보상의 대상은 저자나 발간 회사가 중심이었다. 본상이 제정된 이유다.

종당 책 판매 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 선진국들보다 더 심한 상황이다. 편집에 대한 출판계 및 국가 사회적 관심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수한 편집자들의 사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서 '국가 기간요원'인 편집자들의 부족 사태가 올 것은 틀림없다. 이는 출판계만이 아닌 국민의 문자 생활의 장애를 장차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다수 출판계의 경제 상황은 편집자 양성을 위해 초보자를 뽑아 훈련하기 어렵다.

대신 2,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본인이 받던 월급보다 더 주는 식으로 경쟁회사에서 뽑아오려 한 지 오래다. 그나마 경력자들은 수익이 많은 일부 출판사나 잘나가는 방송이나 플랫폼 업체에서 대부분의 출판계가 주지 못하는 월급으로 데려가 버린다.

그런데도 방송의 몇 자 안 되는 자막 등 각종 마스크의 문맥에서도 오자는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출판은 편집 없이는 생각도 못 한다. 편집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 전설의 편집자 및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올해의 수상자들을 뽑아주셨다. 예상치 못한 많은 우수한 편집자들을 위해 수상자를 늘려달라 하셨지만, 재정의 한계로 들어드리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기부를 유도해 더 많은 분을 수상하도록 노력하여야겠다는 재단 내부의 다짐도 있었다.

올해는 편집의 세계에 주목한 조그만 잔치가 위기에 빠진 우리 출판사들의 활력에 반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재단을 대표하여 이 상을 궤도에 올려놓으신 정해림, 정병규, 부길만, 윤재승 위원 및 임직원 여러분, 관심 가져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종수

03 — 심사총평

한국출판편집자상 심사 대상자로 올라온 편집자는 모두 32인, 후보자들이 제출한 출판물을 합하니 100종이 넘었다. 편집자상 후보자를 출판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현역으로 그 범위를 좁혀놓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올라왔다.

각 후보자들의 활동 내용과 출판편집 실적물 목록 및 출판 편집 관련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살펴본 우리 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수상자로 선발하여 우리 사회와 출판계에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되는 편집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분들의 활동에 우열을 매기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고민이었다. 그 고민은 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우선, 심사의 기본 전제로 첫째, 편집관이 뚜렷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 둘째, 출판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가치 있고 오래 읽히는 책을 기획·편집한 사람, 셋째, 제출된 출판물에 대한 평가 등에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출판계에서 소홀히 다루는 특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 마케팅의 성과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기획·편집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편집자의 역량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획물을 낸 사람, 초심을 유지해온 장인정신의 편집자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12인의 수상 후보자가 정해졌다. 모두 출판편집자상을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지만, 다시 3인으로 압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이승우님, 이경아님, 김세원님 3인으로 압축하여, 대상에 이승우님, 금상에 이경아님과 김세원님을 선정했다. 3인 모두 대상 후보로 부족함이 없어 심사위원들의 장시간 토론 끝에 이승우님을 선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수상자 선정 결과와 수상자별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상자 선정 결과

대상 | 이승우

금상 | 이경아

금상 | 김세원

수상자별 선정 이유

대상 수상자 | 이승우

1995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28년간 편집자로 근무하며 인문학술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적 학자들 및 새롭게 발굴한 젊은 연구자들의 저술을 기획·편집하여 사회에 내놓음으로써 우리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물로는 '한길그레이트북스'와 '한길신인문총서'(이상 한길사 발행) 및 '코기토총서-세계사상의 고전'과 '인문정신의 탐구' 시리즈(이상 도서출판 길 발행)이 있다. 이 책들은 대학과 지식인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학문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수상자는 서양 인문학 분야의 고전 번역에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리스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등의 원전을 번역·편집하며 비판 정보 작업을 수행해왔다. 번역출판에 대한 수상자의 편집관은 확고하다. 수상자는 편집자의 역할이 저자의 원고를 어법에 맞는 우리 말로 다듬고 편집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하에, 번역자와 함께 고전 텍스트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방대한 문헌학적 서지학적 주해를 꼼꼼하게 달아 독자들이 고전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왔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성소수자 문제, 비정규직 대책 등의 문제도 출판을 통하여 이론적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금상 수상자 | 이경아

1998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25년간 편집자로서 한국 고전과 인문 분야 서적의 기획·편집을 담당하며 민족문화와 출판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편집 출판물로는 우선 연암 박지원 관련 저술과 연구물 및 안내서적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암 박지원의 대표 저술 『열하일기』와 『연암집상(중하)』를 비롯하여, 『연암을 읽는다』(박희병 지음),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김명호 지음), 『열하일기 첫걸음』(박수밀 지음) 등이 있다. 이 외에 한국 고전 및 관련 연구서로 『어우야담』, 『완역정본 북학의』, 『한국 야담 연구』 등이 있다.

인문 서적으로는 『정본 백범일지』(도진순 교감), 신영복의 저술과 평전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담론-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신영복 평전-더불어 숲으로 가는 길』, 『노무현전집』(전7권), 『자본론 공부』(김수행 지음) 등 다수의 저작물들을 기획·편집한 바 있다.

또한, 수상자는 원고를 사랑하고 저자들과 사상과 정신을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편집자로서, 원전 대조, 주석과의 씨름, 방대한 색인어 찾기 등 지루할 수도 있는 임무를 사랑하며 자부심을 갖고 책을 만들어 왔다. 또한, 어려운 출판 상황에서도 “정성껏 만든 책은 독자들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장인정신을 발휘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서적들을 기획·편집해왔다.

금상 수상자 | 김세원

2001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22년간 편집자로서 경제경영, 자기개발, 인문교양 등 다양한 분야 서적들을 기획·홍보하며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해 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편집 출판물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경영 분야에서 『총각내 야채가게』(김영한 외 지음), 『퇴사준비생의 도쿄: 여행에서 찾은 비즈니스 인사이트』(이동진 외 지음), 『믹스(Mix):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별화』(안성은 지음), 『밀레

니얼의 반격: 라이프스타일 혁신가들이 몰려온다』(전정환 지음) 등이 있다. 자기개발 분야로는 『말공부: 2500년 인문고전에서 찾은』(조윤제 지음),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박소연 지음) 등이 있고, 인문교양서로는 『나를 만나는 스무 살 철학』(김보일 지음),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박정호 지음) 등이 있다.

수상자는 편집자라는 직업으로 새로운 저자와 텍스트를 만나는 것이 늘 짜릿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함께 작업하는 저자가 출판을 계기로 삶의 전환점을 발견하거나 지평을 확대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출판이 사양 산업이라는 우려를 깨고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편집자, 종이책의 물성을 뛰어넘어 콘텐츠 에디터로서 출판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편집자,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치열한 고민으로 새로운 세계의 대안을 찾아내는 편집자가 수상자의 모델이다.

수상자의 이러한 신념은 출판사에서 편집 업무는 물론 효과적인 광고·홍보 전략, 해외저작권 업무, 미디어와 연계한 기획과 홍보, 2차저작권 기획 등에 관하여 배우며 실적을 쌓은 경험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 세 분의 수상자를 낼 수 있었음은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수의 편집자와 출판인 및 언론인과 출판평론가들이 이번 행사에 동참해 준 덕분에 훌륭한 편집자들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출판편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편집자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정해림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한국출판편집자상'은 매우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판계에서 이런 상을 제정하여, 묵묵히 일하는 편집자들의 역할과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출판계의 여러 종류의 상은 있었으나 독립된 편집자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상한 세 분은 두각을 나타낸 분들이다. 편집에 대한 관점이 탁월했다. 세 분 외에도 수상할 만한 분들이 많아서 심사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편집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다.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 내년에도 수상할 기회가 있으므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해림 선생님

우리나라 출판의 전설적인 편집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64년부터 신구문화사(10년), 을유문화사 편집부에서 근무했고, 1976년부터 1996년까지 창작과 비평사 편집부장·대표·고문, 1997년부터 현대실학사 대표를 역임했다. 출판계에 입문한 이후 1,000여 권의 책을 편집·교정·번역했다.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술인 『일표이서』 등 정약용 선생 관련된 도서 1,100여 권을 편집·교정·번역했고, 그 외 편역서로는 정해림 역주 『아방강역고』, 『아언각비·이담속찬』, 『마과희통』, 『지봉유설』, 『성호사설선(상·중·하)』, 그리고 정해림, 박석무 편역 『역주 흥흥신서』, 『다산서간정선』, 『다산시정선』 등이 있다. 주로 조선 실학자들의 저작을 편역했다. 또한 홍기문, 김태준, 문일평, 안확, 신채호 등의 주요 저술을 정리해 총서로 간행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편집·교정 반세기』(한울엠플러스)가 있다.

교정한 책 가운데 홍명희 『임격정』은 남북 통틀어 첫 정보이다. 정해림 선생은 편집자는 오자는 물론 원고의 오류도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단순 교정보다는 편집자의 안목과 역할을 강조했다. 인터뷰 기사로는 '전설의 편집자 정해림, 53년 동안 1천 권의 책을 편집(한겨레신문, 2016. 12. 29)'이 있다.

정병규

〈편집과 디자인〉의 관계는 이제는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따라서 〈편집자와 디자이너〉의 관계도 그러하다. 과거의 편집자 모습은 마치 디자이너의 손길을 벗어난 곳에서 된 듯한 것이 사실이었다. 옛날에는 편집과 디자인이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지만 요즘은 편집과 디자인이 밀접하게 딱 붙어 있다.

편집자가 편집한 것이면 끝나는 것 같지만 지금은 편집자의 덕목으로서 디자인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새로운 편집과 디자인이 함께 해야 된다. 글만 가지고 편집이 다 된 것처럼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한국출판편집자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



정병규 선생님

출판인이자 한국 북디자인의 세계를 개척한 북디자이너.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 1975년 월간 『소설문예』 편집부장으로 출판계에 입문. 민음사 편집부장, 흥성사 주간 등으로 근무했다. 중앙일보 아트디렉터로 활동. 70년대 후반 '북디자인'이란 용어조차 낯설던 때, 책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 북디자인의 세계를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 올렸다. 우리나라 1세대 북디자이너인 정병규 선생은 프랑스 파리의 에스 티엔느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고 돌아와 1984년 2월엔 공식적으로 '정병규 디자인'을 설립했다. 편집자 커뮤니티 북에디터 출판강좌 등 여러 곳에서 북디자인을 강의했다. 북일리스트레이션 '정병규 학교'를 개교하여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표적인 북디자인 작품은 한수산의 『부초』 소설가 최인호의 역사소설 『해신』의 표지 등 3,000여 권의 책을 디자인했다.

04- 심사위원의 말

부길만

이번 한국출판편집자상 심사에 참여하며 얻은 교훈 또는 소감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한국 출판의 희망을 보았다.

최근 출판계가 어렵다는 소리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투철한 장인의식으로 비전을 찾아나서는 출판편집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저자들을 발굴하여 사회에 널리 알리고, 소중한 핵심 콘텐츠를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러한 출판편집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때, 출판이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은 불식될 것이다.

둘째, 출판편집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새삼스런 깨달음이다.

출판은 역사적으로 문화의 창조와 전파에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출판편집자임을 이번 심사과정에서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출판편집자들이 보여주는 실적물들이 바로 그 중요한 증거물들이었다.

향후 한국출판편집자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출판편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한국이 세계 출판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부길만 선생님

우리나라 출판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한국출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외국어대 독어과를 졸업한 이후 영국 쉘리오크 대학을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출판잡지를 전공해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양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경희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강사,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책의 역사』, 『출판산업 발전과 독서진흥』, 『한국 출판의 흐름과 과제』,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출판학의 미래』, 『한국 출판 역사』, 『지역사회의 책문화 살리기』, 『우리 책과 한국사 이야기』 등이 있다.

윤재승

먼저 수상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오늘 수상한 분들은 모두 출판, 편집에 대한 관점, 자부심, 긍지 등이 돋보였던 분들이다. 물론 편집한 책도 훌륭했다. 어려운 출판 현실 속에서 이런 편집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만일 내가 일찍 이분들의 편집 관련 자기소개서 읽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책을 출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한국출판편집자상’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 그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10여 분은 뛰어났다. 특히 수상자 선정에서 마지막까지 경합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몇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며칠간 괴로웠다. 이분들은 모두 자체 발광 능력을 가진 다이아몬드 같은 분들이다.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머나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말지어다”(도쿠가와 이에야스).



윤재승 이사님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현 한국고전번역원) 졸업, 논문으로 『해방 후 역경(경전번역)의 성격과 의의』,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선사의 서간문 고찰』, 『경허의 지음자 한암』 등 10여 편이 있고, 저서로는 『왕초보, 선(禪)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2017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선불교-생활·철학·문화로 본 선불교』가 있다.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2017)

대상



이승우(李承雨)

1968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주)도서출판 한길사에 입사한 후 기획, 편집, 홍보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3년 기획실 차장으로 퇴사했다. 이후 같은 해에 도서출판 길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8년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선정한 '올해의 출판인' 편집 부문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7~21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로도 있었다.

(주)도서출판 한길사 재직시 '한길그레이트북스', '한길신인문총서', '한길로로로' 시리즈 등을 기획했으며, 도서출판 길에서도 인문, 학술 분야의 '코기토총서-세계사상의 고전', '인문정신의 탐구', '프런티어 21', '역사도서관' 시리즈를 비롯해 '발터 벤야민 선집'(전15권), '게오르크 짐멜 선집'(전10권), '막스 베버 선집'(전10권) 등을 기획, 출판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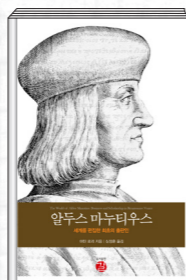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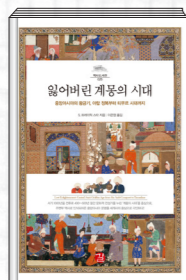
갈릴레오의 망각,
혹은 책에 관한 기억



불안과 괴로움



알두스 마누티우스



잃어버린 계몽의 시대



존재자와 본질



평화의 수호자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600여 년 전, 베네치아의 출판인 알두스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는 '책'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웠던 출판계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알디네(Aldine)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출판사의 표장(標章)으로 '뱀'과 '돌고래'가 그려진 그림을 통해 뱀의 '안전함'과 돌고래의 '신속함'을 절묘하게 조합한 그리스 격언의 라틴어 번역어 “천천히 서둘러라!”를 표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편집자라면 누구나 원고를 대하는 자세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자나 역자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나서 하루속히 책이 출판되기를 염원해 편집자를 독촉하지만(신속함), 편집자는 완벽한 교정, 교열을 위해 교정지를 보고 또 보는 각고의 노력(안전함)을 마음속에서 동시에 갖고 교정지를 대합니다. 더욱이 이제 28년 가까이 책 만드는 일을 해오고 나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격언이 금과옥조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가 홍수 같이 쏟아지고 온갖 매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첨단 디지털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이라는 매체는 생명을 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해가 갈수록 출판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해가 '출판의 위기'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8년 동안 책을 만들어 오면서 나름 제가 책을 만드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저는 그것을 '3A'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첫째, 'Aufklärung'(계몽)입니다. 아마도 책이 갖고 있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고유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둘째, 'Aura'(아우라)입니다. 비록 책은 물질성으로 그 외연을 선보이지만, 그 가치는 결국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 요소 내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어젠다(Agenda), 책을 통해 사회적 의제나 문제의식을 선보이는 것이 책을 만드는 행위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저자와 역자와 더불어 '정신의 교류'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독자에게 선보이는 일은, 갈수록 출판 현실이 엄혹할지라도 버터내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두스는 20여 년 동안의 130여 종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책은 동시대 서유럽의 끝 스페인에서부터 동쪽 끝의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왕족이나 귀족, 학자, 지식인 등 글을 읽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장했거나 구입하기를 갈구했던 최우선이자 최고의 목록이었습니다. 제가 또 한 명의 출판인의 전범(典範)으로 생각하는 독일 주어캄프(Suhrkamp) 출판사의 지크프리트 운젤트(Siegfried Unseld, 1924~2002)는 끊임없이 저자들과 편지를 주고받거나 지적 만남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출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의 시대'를 알두스가 열고 운젤트가 마지막을 장식한 것 같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움베르토 에코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책 기반의 출판문화는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텍스트에 대한 한없는 믿음으로 행간에 치이더라도 책을 만드는 일은 이 세상 직업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서가이자 간서치이셨던 이광주 선생은 제게 출판사가 대학보다 더 소중하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지식문화와 대학 위기의 시대이기도 한 지금, 힘들지만 인문사회과학 학술출판을 부여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상을 받기까지 항상 세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제정해 첫째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김종수 이사장님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선뜻 연락을 주시고 추천서를 써주신 열화당 이기웅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길'의 박우정 대표와 천정은 차장은 항상 저의 버팀목이자 출판 동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님과 제 아내 황종환, 그리고 두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같은 날,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합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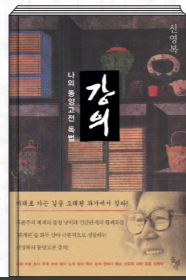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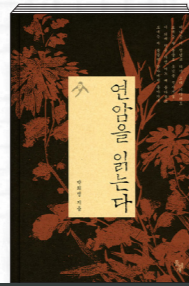
이경아(李京兒)

1998년 2월 출판계에 들어와 솔출판사에서 편집을 배웠으며, 일빛출판사에서 편집과 제작을 겸하는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2003년 9월, 돌베개출판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편집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 작업 도서로 『열하일기(1-3)』(김철조 옮김), 『연암집(상·중·하)』(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을 읽는다』(박희병 지음),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1 회화, 2 서예)』(박희병 지음), 『열녀의 탄생』(강명관 지음), 『홍대용과 항주의 세 선비』(김명호 지음),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신영복 지음), 『담론—신영복의 마지막 강의』(신영복 지음), 『노무현 전집(전7권)』(노무현 지음), 『자본론 공부』(김수행 지음), 『정보 백범일지』(도진순 교감) 등이 있다.

대표작



강의



연암을 읽는다



열녀의 탄생



열하일기 1



정보 백범일지



홍대용과 항주의 세 선비

편집자 선배님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과분한 상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상이니 감사히 받지만, 한편으로 부담이 앞섭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많은 선배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결코 나올 것이 없는데, 단지 현업에서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자리를 지켰기에 이런 상을 받을 기회도 온 것이겠지요. 편집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저는 혼자지만, 그 전에 많은 선배들의 가르침이 세월과 함께 쌓였습니다. 제 마음이 가닿을지는 모르지만, 수상의 기쁨을 제가 아는 출판계 선배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르쳐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출판문화 또한 <계승>의 고리가 약합니다. 뛰어난 분이 많지만, 우리의 출판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십대부터 육십대까지 촘촘하게 현업에서 뛰는 편집자가 많았으면 합니다. 기뻐 선배가 없다는 것이 일하는 내내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선배가 못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사람의 푸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돌베개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도록 적극 추천해주신 한철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편집자로 살아온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수상 소감을 갈음하겠습니다.

우연에서 필연이 된 편집자라는 직업

저는 학창 시절,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편집자를 꿈꾼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서 한국한문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할 때, 출판사에서 편집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솔출판사의 <나랏말씀> 시리즈 작업에 전문 연구자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저는 제 전공과도 맞고 또 유학비용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사에 입사했습니다.

솔출판사와 일빛출판사에서 다양한 책을 내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선배들의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 역할을 sbi에서 대신하지만, 선배의 현장에서의 가르침

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시에 제작 업무도 함께 담당했는데, 제작 현장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돌베개에 입사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처음에 인문사회팀 팀원으로 배속되었다가 곧 인문고전팀을 새롭게 만들고 팀장으로 제 전공을 살린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돌베개에서는 주로 인문고전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과 관련된 책들을 다수 만들면서 한 때 돌베개가 연암출판사라는 우스갯소리도 들었습니다.

인문고전 범주 외에도 백범일지와 신영복 선생의 책들을 담당하고, 노무현 전집을 펴내고 백기완 선생의 책을 내면서 인생의 스승을 책 속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만드는 인문고전 분야의 책들은 다른 분야와 달리 단번에 인기가 오르고 한꺼번에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판 없이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생명력 있는 책들입니다. 돌베개 대표님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셨기에 20년 가까이 제가 이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책을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책을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지만 사실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로 남지 않겠다는 소망입니다. 편집자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끝없는 원전 대조, 주석과의 씨름, 방대한 색인어 찾기 등 엉덩이가 짓무를 만한 업무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책을 꾸준히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편집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정성껏 만든 책은 독자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넓지만 알지 않은, 깊지만 편벽되지 않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제 모습이 독 짓는 늙은이 같지만, 저는 제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책은 저에게 말기면 안심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욕심껏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큰 상을 받은 영광과 감사를 보잘것없는 제 소개로 갈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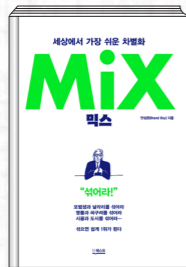
금상



김세원(金世元)

2001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한국언론자료간행회에 입사하며 출판계에 입문했다. 이후 거름출판사, 위즈덤하우스에서 편집과 기획, 홍보, 해외도서 저작권 업무 등을 배웠고, 2012년 흐름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출판물의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과 동시에 조직관리 리더십을 배웠다. 2016년 길벗출판사에 입사, '더퀘스트' 브랜드로 경제경영서를 출간하는 새로운 팀을 론칭했고, 현재는 경제경영·자기계발·인문교양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행본을 출간하는 경제경영서실 실장을 맡고 있다. 2017년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출판연감』에 경제경영서 시장 분석을 집필하고 있다.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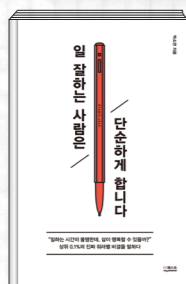
믹스



우리 대 그를



유튜브 레볼루션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퇴사준비생의 도쿄

누구보다 일을 즐기고 사랑하는 편집자

영광스러운 수상 소식에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편집자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21년 차 편집자로 살아오면서 소설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책을 기획·편집해봤고, 각 분야에서 빠짐없이 베스트셀러를 냈으며, 각종 우수·교양 도서 등의 수상을 이끌어 보람을 느끼며 오늘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 없이 저는 편집자의 일이 즐겁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전직을 고민한 적 없고, 편집자라는 직업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예민하게 탐색하고, 늘 새로운 저자와 텍스트를 만나는 것이 지겨울 틈 없이 짜릿하고 흥미로우니까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논어의 구절이 제가 편집자로서 통련하고 있는 비결이라고 자부합니다.

좋은 편집자가 되기 위하여

'소비자 중심(Consumer-centric)', 즉 독자 중심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획도 편집도 궁극적으로 '독자'를 염두에 둔 활동인 바, 독자와 시장을 잘 알수록 좋은 편집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독자를 이해하고, 가능하면 사랑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를 좀 더 알고 싶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듯, 독자를 사랑할수록 독자의 니즈를 발견하고 만족을 안겨줄 수 있겠지요. 저마다 행복과 안정을 찾아, 성장과 발전을 쫓아, 생존을 위해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의 독자들에게 오늘도 사랑을 보냅니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경영'인데, 대중의 결핍과 불안, 그리고 욕망을 가장 빠르고 예리하게 담아낼 수 있는 분야여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의 개인 취향에 의한 독서는 주로 고전, 정치사회, 인류학인데, 그런 취향으로 공부하게 되는 사회문제, 글로벌 이슈, 역사적 사건 등을 활용하여 저의 타깃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인사이트를 주는 기획으로 연결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나의 독자가 누구인지 잘 아는 편집자

어느덧 선배보다 후배가 많아진 연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집자로서 좋은 롤모델도 되고 미래 비전도 제시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가진 능력이 부족하여 조바심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커다란 변화와 혁신을 이끈 기업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성장했습니다. 출판 편집자도 관습에서 벗어나 독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험을 어떤 수단으로 제공해야 만족할지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겁니다. 많은 출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화의 본질 역시 형식(포맷) 이전에 발견성과 접근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과제로만 보이는 디지털화이지만, 그 정의를 단순화하면, 과거 출판사들이 서점과 거래를 했던 B2B 시장으로부터 출판사와 독자가 직접 교류하는 B2C 시장으로의 변화를 곱씹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엔터테인먼트는 이야기에 목말라 있고, 뉴스와 미디어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독자들이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가 어렵고 지루하고 접근하기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 방법을 찾고 변화해야겠지요. 이런 치열한 고민과 어설픈 시도들이 기어이 답을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원 씨는 일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껴요?" 저자로 연을 맺은 한 스타트업 CEO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저는 함께 작업하는 저자가 출판을 계기로 삶의 전환점을 발견하거나 지평을 확대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일과 삶에 저의 출판물이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다는 서평이나 이메일을 접할 때 기쁩니다. 또한 선후배 동료들이 일의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맛에 일하지'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내적·외적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 영감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편집자로 살아가겠습니다.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101동 201호(건지동, 대성스카이렉스)

TEL. 02-732-1434~5 FAX. 02-722-5406 E-mail. tkpfs@daum.net www.tkpf.or.kr